V-리그 23일 개막

현대 캐피탈 2연패 다짐 프로배구 2006~2007시즌 개막을 앞두고 20일 경기도 용인 현대캐피탈 배구단 연습장에서 김호철 감독을 비롯한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2연패를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용병들 '스파이크 대결' 큰 관심

작년 MVP 현대 루니 맹활약 예상
삼성 실바·대한항공 보비 등 가세

'최고 용병은 바로 나'

23일 개막하는 프로배구 '힐스테이트 2006~2007 시즌 V-리그'에서는 외국인 용병들의 뜨거운 스파이크 대결이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지난 시즌보다 상향 평준화된 각팀 용병들이 본격적으로 코트에 나서기 때문이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들 중에는 지난 시즌 현대캐피탈의 통합우승을 이끈 숀 루니(24)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루니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오픈 공격 1위(48.94%)와 득점 4위(437득점), 서브 2위(세트당 0.39개) 등의 빼어난 성적으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와 챔피언결정전 MVP를 휩쓸었다.

206㎝의 큰 키에서 내리 꽂는 고공 강타와 강서브가 위력적인 루니는 2연패에 도전하는 '장신 군단' 현대캐피탈에서 공격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화재가 정상 탈환을 위해 영입한 208㎝의 브라질 출신 레안드로 다 실바(23)는 타점 높은 공격이 돋보이는 라이트 공격수로, 루니와 네트를 사이에 둔 파워 넘치는 대결이 기대된다.

LIG의 프레디 윈터스(23·198㎝)도 미국 페퍼다인 대학 시절 루니와 3년간 룸메이트로 생활한 친구 사이로 캐나다 국가대표팀에서 주포로 뛰고 있다.

〈현대 루니〉 〈대한항공 보비〉

지난 11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종횡무진 코트를 누벼 강한 인상을 남겼고 잘 생긴 얼굴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의 '신형 엔진' 보비(27·208㎝)는 브라질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과 높이, 수비, 파워를 두루 갖추고 있어 최고 용병 자리를 노리기에 충분하다.

여자부의 미녀 용병들은 막강한 공격력으로 각 팀 전력의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시즌 최하위에서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GS칼텍스가 지난 7월 브라질에서 데려온 용병 1호 안드레이아 스포르진(23·187㎝)은 허약한 센터진에 합류해 블로킹과 공격에서 기대가 크다.

KT&G가 영입한 브라질 대표 출신의 루시아나 아도르노(26·190㎝)도 큰 키를 이용한 블로킹과 시원한 후위 공격이 강점이다.

도로공사가 한 달전 계약한 미국 일리노이대학 졸업반의 레이첼 밴 미터(22·190㎝)는 수비력은 떨어지지만 공격은 나무랄 데 없고 현대건설이 뽑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출신의 산야 토마세비치(26.186㎝)는 경험이 풍부해 노련하다는 평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마운드 풍운아' 최향남 국내 복귀 무산

"메이저리그 재도전"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산하 트리플A 버펄로 바이슨스에서 활약한 '풍운아' 최향남(35·사진)의 한국 프로야구 복귀 시도가 무산됐다.

SK와 협상이 불발된 뒤 좌절을 겪은 최향남은 20일 "마음이 편한 곳으로 가고 싶다. 미국으로 가 메이저리그에 재도전하겠다. 내년 시즌 한국 복귀는 없다"고 밝혔다.

최향남은 친정팀 KIA, LG, SK와 복귀 협상을 벌였으나 가장 의견 접근을 이뤘던 SK가 막판 입장을 바꾸면서 공중에 뜨고 말았다.

최향남은 "1년간 계약금 3억원, 연봉 2억원, 옵션 2억5천만원 등 총 7억5천만원에 이적료 3만 달러를 구단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SK와 의견을 조율했지만 SK가 마음을 바꿨다. KIA가 2년 계약을 제안했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가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LG는 한때 최향남의 영입을 검토했지만 자유계약선수(FA) 박명환을 잡아오면서 시장에서 철수했다.

최향남은 애초 먼저 몸값을 밝힌 뒤 세 팀의 제안액을 보고 구단을 선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LG와 KIA는 최향남의 몸값이 1년치고 너무 터무니 없다며 난색을 표했고 SK는 구체적인 협상이 오가다 느닷없이 협상 테이블을 접었다.

현재 서울 노원구 상계동 사이버대학교에서 러닝으로 겨울을 이겨내고 있는 최향남은 조만간 비자가 나오는 대로 미국으로 날아가 클리블랜드 구단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승수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은 지난 19일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 챔피언십게이트 골프클럽에서 위성미에게 명예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연합뉴스

위성미 명문 스탠퍼드대 합격

'천만달러의 소녀 골퍼'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꿈에 그리던 미국의 명문대 스탠퍼드대학에 입학한다.

20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스윙코치 데이비드 레드베터와 훈련을 하고 있는 위성미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후 이메일을 통해 스탠퍼드대로부터 입학 허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하와이 호놀룰루의 푸나호우 고교에서 기말 시험을 치렀던 위성미는 "합격 여부에 신경을 쓰느라 위장병이 생겼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친구들과 함께 컴퓨터실에서 합격을 확인한 뒤 너무 기뻐 비명을 질렀다"고 털어놓았다.

12살 때부터 LPGA 투어에서 뛰었던 위성미는 2005년 프로로 전향한 뒤에도 학업과 골프를 병행하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자신의 우상인 타이거 우즈(미국)가 다녔던 스탠퍼드대학에 합격함으로써 꿈을 이뤘다. 위성미는 내년 가을 스탠퍼드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다.

한편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평창유치위)는 이날 위성미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평창유치위 한승수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지난 19일 플로리다 올랜도 챔피언쉽게이트 골프클럽에서 위성미를 만나 명예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성별 이상' 가난한 인도 육상선수 메달만 박탈하고 상금은 놔두기로

2006 도하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800m에서 은메달을 따낸 뒤 '성별 이상'으로 메달을 박탈당한 산티 순다라얀(25·인도)이 포상금은 지킬 수 있게 됐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순다라얀의 '여성성'에 대한 검사 결과를 근거로 인도올림픽위원회(IOA)에 메달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순다라얀의 메달은 취소돼 3위 빅토리야 야로프체바가 대신 은메달을 받게 됐다.

하지만 그의 고향인 인도 남동부 타밀 나두 주 정부가 순다라얀에게 이미 지급한 메달 포상금 150만루피(3천117만원)는 그대로 놔두기로 했다.

주 정부의 관용은 순다라얀의 딱한 사정이 알려졌기 때문. 타밀 나두주에서 벽돌을 굽는 근로자 집안의 다섯 자녀 중 한 명으로 태어난 순다라얀은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고 영양결핍에서 벗어날 길을 찾다 운동을 시작했다.

집안은 아직도 매우 어려워 그의 부모는 순다라얀이 은메달을 따내는 장면도 옆집에 있는 TV로 시청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순다라얀의 상태는 세포내에 두 개의 X염색체를 가져야 하는 여성적 특성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포츠중계

21일(목)

▲미국대학농구〈애리조나-멤피스〉(10 : 20·SBS스포츠), 〈워싱턴-LSU〉(12 : 20·SBS스포츠)

▲대학장사씨름 3차대회 소장급(14 : 00·MBC ESPN)

▲프로농구〈KCC-SK〉(18 : 50·Xports, SBS스포츠)